

## 전통적 南部風 도시 美國 아틀란타

이 글은 지난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美國 「아틀란타」에서 열린 『대기오염 규제방안에 관한  
APCA국제학술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환경청  
이두호 次長의 견문기이다. - 편집자 注 -

이두호 / 환경청 次長

예정된 아틀란타의 회의일정을 마치고 2월 22일 일요일 이른 아침 최광식 총영사와 그의 전가족(부인, 은영이, 현철이)의 출영을 받으며 이슬비 내리는 아틀란타 공항을 떠나 1시간 12분만에 워싱턴의 내쇼날 공항에 도착하여 힐튼호텔에 투숙하였다.

다음날 아침 9시부터 미국환경청장과 면담약속이 되어 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천지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고, TV에서는 눈이 9인치나 와서 모든 정부기관과 각급학교는 휴무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모처럼의 약속이 허사가 되는구나 하면서도 EPA에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마침 Lee Thomas 청장이 10시경 사무실에 나오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11시경 美 EPA에 들러 청장을 만나 그간 추진중이던 한미협정문제와 11월의 한미공동 Symposium 등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미국환경청장 Lee Thomas (49才)는 오존층파괴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노력을 위한 한미협정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오는 11월의 양국간의 첫 심포지움에는 한국에 와서 基調演說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점심시간에는 Metropolitan Club에서 국제협력담당청장보인 Fritzhugh Green으로부터 전통 미국음식으로 대접을 받았다. 이 식당은 멤버십이 없으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실내에서는 사진촬영도 허용되지 않는

**KAL의 하와이 콜로니  
Waikiki Resort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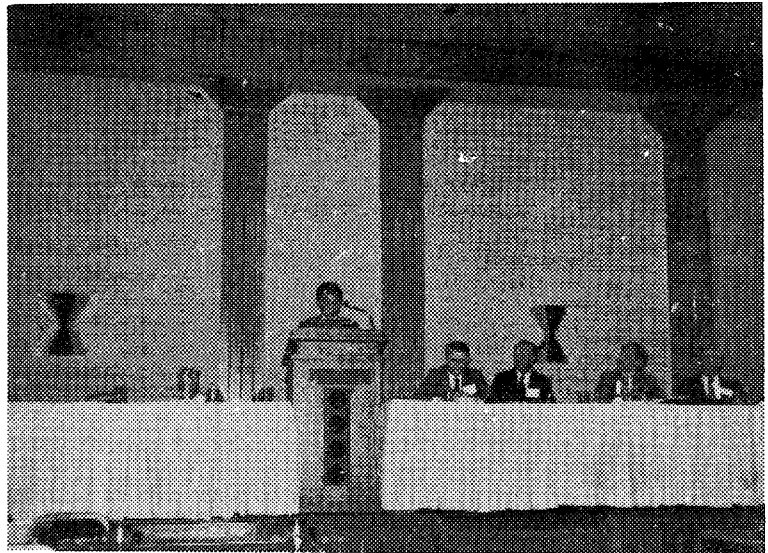
규칙이 매우 엄격한 워싱턴 DC내의 고급 사교클럽이다.

중식도중 Green과의 대화에서 그는 EPA와 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EPA는 Military역할이고 산업은 Enemy라는 농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워싱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귀로에 지상의 낙원이라는 하와이(Hawai)에 한번 들려볼 양으로 아침 9시 30분 워싱턴을 출발하여 美 중부의 교통요로인 세인트루이스(St Louis)를 거쳐 현지시간으로 오후 7시 45분(워싱턴과의 시차 5시간) 호놀룰루(Honolulu)에 도착하여 와이키키(Waikiki) 해변에 자리잡고 있는 Waikiki Resort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Hotel 방에 입실하고 보니 대한항공 안성재 이사가 보낸 과일 광주리가 긴 여정에 지친 나를 반겨주었다.

이 호텔은 한진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로서 이 호텔 2층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식 식당「동백」을 비롯하여 로비층의 상점등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가히 호놀룰루의 KAL 콜로니



〈APCA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에 나선 필자〉

(Colony)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옛날 KNA를 인수한 민간항공인 KAL이 초창기의 씨비스 영망이란 舊殼을 벗고 이정도로 발전하다니 이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급성장에 못지 않은 대단한 성장이다.

이것이 곧 국력이 아니고 빛이란 말인가?

비록 한 기업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일지언정 이 선진대국의 어느 일각에 이같은 Korean Colony를 이룩할 수 있다니 이것은 한 기업의 성과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보람임이 분명하다.

비교적 잦은 나의 해외나들이 때마다 느끼는 소감이지만 KAL의 對乘客, 씨비스나 대외적 이미지가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외형상의 태극마크를 비롯한 塗色의 색상을 비롯하여

120여개의 섬나라 하와이 군도

내부설비, 機內食, 특히 아릿다운 몸매의 여승무원들의 옷차림등 어디 하나 나무랄데 없는 국제 최상의 수준급이다.

KAL이여!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거라! 그리하여 이제까지도 이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앞으로 더 세계만방에 유감없이 Korea를 팔아다오!

하와이群島는 태평양의 중앙부에 있는 여덟개의 화산도와 그 부속 도서등 총 124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群島는 그간 왕국, 공화국을 거쳐 1899년 미국에 합병되어 準州를 거쳐 1959년에 州로 승격하여 미국의 마지막 50번째 州가 되었으며, 州의 수도는 오후(Oahu)섬의 좋은 항구란 뜻을 지닌 호놀룰루에 두고 있다.

기후는 열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양성 기후로서 사탕수수, 파인에 플이 주산물이다.

인구는 有人島 8개 섬에 130만명으로서 원주민인 카나카족은 점차 감소되어 총인구의 11%정도에 불과하고 주민의 대부분은 동부 아시아와 남부유럽지역의 移民으로서 백인이 24%, 일본인이 23% 필리핀인이 19%로 대종을 이루고 우리나라 移民도 190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총인구의 3%정도에 이르고 있다.

하와이군도의 중심 오후섬

이들 인구의 대부분이 그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이 있고 수도 호놀룰루가 위치하고 있는 오후섬에 모여 살고 있다. 하와이대학도 여기에 있고 2차대전의 발발지인 진주만(Pearl Harbour)도 여기에 있다.

흔히들 이섬을 “하와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제 “하와이섬”은 8개 有人島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이 군도의 동남단에 있는 이들 군도의 主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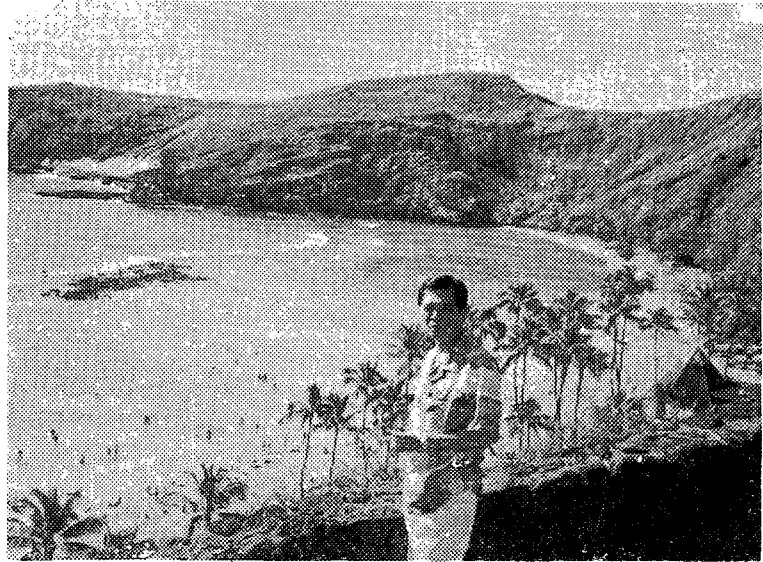
천혜의 낙원 하와이 군도

호놀룰루에 도착한 다음날 귀국을 하루 앞두고 우리 일행은 오후섬 일주 관광길에 올랐다. 교통편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여행사의 벤이었고 같은 차편으로 미국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중이라는 카톨릭 의대의 젊은 부부가 일행이 되었다.

아침 9시 호놀룰루 근교의 고급주택지로서 필리핀의 망명대통령 마르코스 집도 있다는 해변의 촌락 카할라(Kahala)지역을 빠져나온 자동차는 바다를 오른쪽으로 끼고 해안 일주 도로를 따라 중간 중간 쉬어가며 섬을 한바퀴 도는데 15만년전의 활화산이었다는 다이아몬드 헤드(Diamond head), 100년전까지의 왕국시대 왕족일가가 해수욕을 즐겼다는 하나우마(Hanauma)해수욕장, 이곳은 소쿠리같은 지형에 물이 맑고 파도가 거세지 않아 현재에도 사람과 물고기가 함께 수영을 즐기는 명소가 되고 있다. 100년전 용암이 분출되었다는 코코헤드산(Koko head mountain), 나환자와 함께 살면서 나환자를 치료하던 신부「다미안」이 그 자신도 문둥병 환자가 되어 죽었다는 몰로리카섬, 이 섬 正동쪽의 높고 고갯마루에 위치하여 해맞이의 명소가 되고 있는 마카푸(Makapuu)의 일출봉, 일년 내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바람산(Pail lookout mountain)등 아름답고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해변의 모래밭과 잔디밭, 해안연도의 붉고 노란 형

형색색의 보겐빌리아, 생강꽃, 몬키파 등의 꽃나무들과 눈이 모자라도록 넓게 펼쳐져 있는 파인애플, 사탕수수 농장등 이 지상에 이처럼 섬 주변 전체가 해수욕장이고, 평지의 잔디와 꽃나무, 언덕진 산비탈의 선인장과 怪岩, 怪石등 지상의 모든 것이 관광자원인 완벽한 관광지가 이곳 말고 또 어디에 있단 말이고?

하와이야 말로 천혜의 관광지이다. 특히 북반구에 겨울이 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몇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캐나다항



〈 하와이 해변가에서의 필자 〉

공은 여름이면 주 1회 정도 운항하나 겨울이 되면 주 7회나 운항할 정도로 겨울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한다. 이들 관광명소중 특히 볼만한 곳은 폴리네시아문화센터 (Polynesian Cultural Center)와 진주만 (Pear Harbour)의 2차대전 기념관이다.

폴리네시아문화센터는 1963년 물몬교인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센터로서, 여기에는 이름 그대로의 많다는 뜻의 Poly (=many) + 섬나라라는 뜻의 Nesia (=island)의 나라들인 뉴질랜드, 휘지,통아, 사모아, 말케스, 타이티, 하와이등이 그들의 토속적인 춤과 노래를 경연하고 이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전통생활상을 한곳에 모아 전시한 곳으로서 이 민속촌을 한바퀴 돌면 태평양상의 이들 모든 나라를 한바퀴 돌아본 것과 같은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진주만의 2차대전 기념관은 1941년 12월 7일 일본 전투기들이 당시 진주만에 정박중이던 미국함대에 포격을 가하여 총 98척 중 19척을 파괴하고 2404명을 희생시킨 비극을 담아 기념관화 한 것으로서 당시의 끔찍한 기록과 군장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기념관 건너편 해안에는 당시 파괴된 전함중 引揚改修치 못한 유일한 한척의 전함인 32,000톤급의 아리조나호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속에 잠든 117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음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승만리홀

이곳 진주만은 현재에도 미국의 태평양 감시본부인 미 7함대와 3함대의 사령탑이 있는 곳이다.

이곳 오후후섬에서 또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곳에는 무려 28개의 골프코스가 있는데 그중 호놀룰루 국제컨트리클럽(Honolulu International Country Club)에서는 전세계의 유명정치인들의 이름을 따서 각 홀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동양인으로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이름을 딴 승만리홀과 캐석장홀이 있어 “영웅은 사라져도 이름만은 남는다”는 격언의 의미가 절실해진다.

맑고 푸른 그 하늘/그 바다/

오늘로서 12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날이다. 하와이 현지시간으로 10시 55분 KAL 050편은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이륙했다. 비행기는 계속 맑고 푸른 하늘을 동에서 서로 태평양 상공을 횡단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하늘과 바다가 모두 푸른색깔인지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그저 푸르디 푸르기만한 망망한 대우주의 한가운데로 비행기는 우주의 미아인양 날고 있다.

참으로 우주는 무한하다. 그래서 천지는 玄黃하고 우주는 洪荒한데 우리 인간은 창해지일표일 수 밖에…… .〈 끝 〉

新明心寶鑑 8

酒食兄弟는 千個有로되

急難之明은 一個無나라

『서로 술이나 음식을 함께 할 때에는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친구는 많으나,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느니라.』

즉, 술이나 먹을 것이 있을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는 얼마든지 있으나, 위급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는 극히 드문 것이라는 뜻이다.